

독서활동 모범학교, 대성여중

청소년책읽기운동 '우수책키북키학교' 프로그램 4관왕

책으로 크는 마음의 키

'책키북키 란?' ● 도서를 뜻하는 책冊과 북(book)에 열쇠를 뜻하는 키(Key)와 신장身長을 나타내는 합성어로 '책으로 무럭무럭 크는 마음의 키'를 의미하는 말이다. 즐거운 책읽기와 청소년을 이어주는 마음의 열쇠라는 뜻을 갖고 있다. 청소년 책읽기운동프로젝트(www.book-reading.or.kr 홈페이지에 가면 책키북키를 비롯 청소년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한 '청소년 책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됐던 '우수책키북키학교' 프로그램 결과가 발표됐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중·고등학교 235개교를 선정해 참여 학생들에게 1인 1권씩 도서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운영비를 지원한 후 독서 활동 결과를 놓고 심사하는 프로그램. 2004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독서활동을 했던 학교 중 20개교가 우수책키북키학교로 선정됐고, 우수학생 및 지도교사 각 20명에게 문화관광부 장관상, 각 30명에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상이 수여됐다. 이 중에서도 대전의 대성여중(교장 황영수)은 4관왕(우수책키북키학교, 우수학생, 우수 지도교사, 해외도서관 탐방 연구 자격교사로 선정)의 영예를 안으며 독서활동 모범학교로 거듭났다.

학생들 관심사 반영한 10가지 항목 독서계획

"국어과이기도 하지만 걸스카우트 담당교사도 맡고 있거든요. 관련 소식지를 늘 받아보는데 책키북키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 학생들에게 제안을 해봤지요.

지도교사로 활약한 임홍택(국어과)교사는 "책을 읽히는 게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관건은 아이들이 책을 읽은 후의 감상과 이해의 결과물들을 자기 것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었다.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6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독서활동 계획서였다. 고민 끝에 나온 독서 계획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한 약 10가지 항목으로 정리됐다.

가장 기본적인 결과물은 독서활동의 고전적인 독후감이었다. 또한 고전적인 독후감에 요즘 아이들 관심사를 반영해 4컷, 8컷 등의 만화 독후감을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했다. 주제 연상 형태의 독후감도 있었다. 읽은 책이 주는 느낌, 주제 등을 의미하는 단어를 놓고 그 단어가 연상시켜주는 또 다른 단어와 그것의 의미를 기록해 보는 형식이었다. 이 밖에도 독서신문, 독서피클, 책 제목으로 3행시 짓기(시를 짓되 책의 내용, 주제, 감상이 들어간 시를 짓는다)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켰다. 계획서 제출 후 253개교 중 한 학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임 교사는 "무엇보다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자신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장 기분이 좋았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이 한 사람 앞에 한 권씩이라도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들었거든요. 사전에 아이들이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한 권씩 적어 냈는데 그 총액을 평균내서 9,000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 하에 도서구입비를 보내주셨지요. 선정학교가 된 후에 전교생 540명이 한 권 씩의 책을 받았고, 프로젝트 지원비를 받았습시다."



1 국어과 임홍택 교사와 대성여중 학생들은 이번 행사 덕에 책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

2 3 대성여중 학생들이 독서활동 결과물로 제출한 자료들.

2 3
1

7월 중 선정학교가 발표되고 도서구입비 및 지원비가 수여됐으나 임 교사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곧 여름방학이 다가온다는 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학 전에 책을 나눠주고 싶었다는 임 교사는 약 500 권의 각기 다른 책을 구입해 5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재빨리 나눠줘야 한다는 데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 결국 서점을 미리 방문해 이틀 안에 목록에 적힌 책을 준비할 수 있겠냐고 사정까지 했다는 뒷얘기다. 선생님의 열성 덕에 전교생은 방학 전에 책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

1인당 2.4권 속독...독서퍼즐·삼행시 등 이색 독서지도

책을 받은 이후의 활약은 학생들의 몫이었다. 방학기간부터 개학 후까지 500여 명의 전교생은 자신이 받은 책을 열심히 읽었고, 10개의 독서 프로그램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임 교사에게 제출했다. 1권만 읽으면 서운하다 하여 반별 윤독 시간도 가졌다. 임 교사는 “반마다 ‘쑥쑤이’ 라는 친구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 프로그램 용지를 나눠주고 설명도 해줬다”며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공으로 돌렸다.

“책을 읽은 후 그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무척 좋아하더군요. 가령 《연탄길》을 읽은 후 그 주제와 의미들을 사진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한 장의 그림 혹은 사진 안에 느낌을 표현하니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 표현력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이지요.”

한편 아이들이 내놓은 독서퍼즐문제를 그냥 두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교내에서 금 자체적으로 독서 퀴즈대회도 개최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강당에 모여 골든벨을 울리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카메라와 대중의 시선이 없는 틈을 타 ‘트릭’을 구사하는 등 눈치 빠른 학생에게 상이 돌아

가는 폐해가 있어 시험 형식으로 대회를 진행했다. 총 40문항 중 36문항을 맞춘 학생이 1등을 차지했다. 임 교사는 이 밖에도 독후감, 독서퍼즐, 독서표어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유도해 프로그램으로 촉발된 독서 열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음의 키’ 쑥쑤 자라...학교, ‘훌륭한 독서프로그램 감사’

행사 참여기간 동안 대성여중 전교생 540명이 읽은 책은 1,300여 권으로 집계된다. 한 달에 한 학생당 평균 2.4권을 읽은 셈이다. “겨우?”라고 비아냥거리는 이가 있을지 모르나 사실 내신 성적 50퍼센트를 고등학교 진학에 반영해야 하는 3학년 학생들은 책 한 권 읽기도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양은 아니다. 또한 프로그램 결과물까지 치면 2.4권은 그냥 대충대충 읽은 책들이 아니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일 년에 국어 교과서 4권을 다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로서는 다른 책을 읽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지방 학교에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책 한 권 사는 데 얼마 드냐 싶겠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생활비의 일부를 내놓는 게 되거든요.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이 읽고 싶은 도서 한 권을 선물해 준다는 점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무척 감사하고, 의미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임 교사는 “책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아이는 없다”고 말한다. “책은 좋은 것이니 읽어야 한다”는 고답적인 훈계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이에 덧붙여 “지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수책키북키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 되기를 바랐다. **☞** 취재 | 김청연기자 · 사진 | 박신우기자